왜 우리는 산티아고로 가는가

〈김영수 신부〉

800㎞ 넘는 야곱의 복음길… 2000년 흐른 지금은 인생 순례길

매년 600만명 찾아… 안식년 맞는 광주대교구 김영수 신부 내달 순례

올해 처음으로 안식년을 맞는 김영수 신부(40·전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는 오는 3월 의미 있는 도전을 앞두고 있다. 성직자에게 순례는 '도전'이 아니지만, 이번 '산티아고 행(行)'은 김 신부에게 있어 남다르다. 프랑스 남부의 생장피드포르에서 스페인 북부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거쳐 땅끝마을인 피니스테레까지 자그마치 900㎞가 넘는 길을 두발로 걸어가기 때문이다.

산티아고 길은 예수의 제자 야곱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걸었던 곳으로 거리만 800㎞가 넘는다. 보통 사람이 하루 수십킬로미터씩 한달 동안 걸어야 하는 그야말로 고행길이다.

김 신부가 산티아고 행을 택하게 된 것은 지난해 목포시 산정동 성당에서 나주 무학당 순교성지까지 120㎞에 이르는 길을 걸었던 경험이 계기가 됐다. 비록 힘든 여정이었지만 바쁜 일상에 찌들었던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김 신부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지향점을 찾게 될 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설렌다"며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교훈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티아고로 떠나는 사람들은 비단 김 신부 만은 아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Camino de Santiago)'로 불리는 이 길은 종교인 뿐만 아니라 최근엔 일반인들도 찾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비포장 도로에 꼬불꼬불한 산길이지만 매년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던 이 길이 2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전 세계인의 인생순례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길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길을 거쳐 산티아고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1987년에는 이 길 전체가 유럽문화유산 1호로 지정됐으며 18세기 고딕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부르고스 대성당 등 주요 유적만도 1천800여 개에 이른다.

이곳을 찾는 한국인도 지난 2005년에는 1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공식 방문객만 400여 명으로 늘었다. 또 일부 여행사에서 이색 관광상품으로 산티아고 가는 길을 내놓았는가 하면 관련 카페도 생겼다. 특히 '카미노(cafe.naver.com/camino.cafe)' 카페는 1월 현재 2천745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이곳에서 산티아고로 떠나기 위한 정보를 얻거나 여행기를 올려놓기도 한다.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이 길을 나서는 이유는 '카미노(Camino·스페인어로 길이라는 뜻)'를 걸어보겠다는 마음이 대부분. 육체적 한계에 다다르는 것은 물론이고, 긴 여정을 통해 길 곳곳의 풍경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산티아고 순례에 나선 김남현(27·서울시)씨는 카페 '카미노'를 통해 "'15일동안 걸으면서 왜 걷고 있지'라는 의구심과 지름길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다"며 "길을 잃고 헤매면 온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고충이 뒤따르지만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즐겁다"고 글을 남겼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산티아고 가는 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stela)=칠레의 수도 산티아고가 아닌 스페인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 성경에서는 산티아고는 예수의 열두 명의 제자 중 야곱을 말하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야곱의 무덤'을 뜻한다.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유럽의 3대 성지로 꼽힌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화려함을 간직한 산티아고 대성당 서쪽 전실에는 '영광의 문'이라고 불리는 현관이 있으며 순례자들은 이 문을 만지며 기도하는 것으로 순례를 마친다.

종교칼럼

김유수

목회자로서 성도들 가정의 대소사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인생 시작을 기념하는 돌잔치와 연인을 맞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이며, 그동안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회갑,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종과 장례식에 참여한다.

그 가운데 가장 부담되는 경우가 장례식일 것이다. 상(喪)을 당한 가족들에게 뭐라 위로를 해야 좋을지 할 말을 찾지 못해 당혹스러울 때도 많다.

내세의 소망을 말하는 종교인으로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당장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뒤 슬퍼하는 가족에게는 할 말을 잃게된다.

나비처럼 날아오르는 인생

세계 호스피스 사역의 창시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씨의 이색적인 장례식을 소개한 글을 읽게 되었다. 먼저 수인의 관을 열었을 때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고 그것을 본 장례식장의 모든 조문객들이 손에 들고 있던 나비를 날리는 감동적인 장례식이었다고 한다.

사람의 죽음이란 번데기에서 부화해 나비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라고 그녀가 평소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그렇게 나비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녀가 마이데넥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수용소 내부 벽 곳곳에 손톱이나 돌 조각으로 새긴 나방 그림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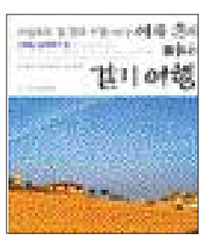
'왜 나비였을까?' 당시는 몰랐는데 20년이 지난 후 그녀가 의학을 공부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의 몸이란 나비로 날아오르는 번데기처럼 영혼을 감싸고 있는 허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행복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시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껴안아 본 적이 언제였는가?" 라고….

희망의 새해 2008년은 우리 모두에게 허물많은 애벌레에서 아름다운 나방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동안 묶여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비상하기를 기원한다.

애벌레가 아닌 나방 앞에는 높은 산도 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고(live), learn(배우고), 사랑하고(love), 웃으며(laugh) 사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 생각한다.

〈월광교회 담임목사〉



'산티아고' 코엘료의 '순례자' 통해 세상 주목

2006년부터 한국인 여행기 등 관련 서적 잇따라 출간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의 작가로 유명한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문학동네)'를 통해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의 수녀 작가인 조이스 럽이 쓴 '느긋하게 걸어라(복있는 사람)', 프랑스 언론인 출신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나는 걷는다(효형출판)' 가 잇따라 출간됐다.

지난 2006년부터는 한국인들의 여행기가 책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보여행가 김남희의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운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산티아고 편(미래M&B)'을 냈고 주부 여행가인 김효선은 50대의 나이로 50일간의 기록을 담아 '산타아고 가는 길에서 유럽을 만나다(바람구두)'를 펴냈다.

또 영화학도인 신재원 씨가 37일 동안 길에서 만난 수많은 순례자와 대화를 엮은 '엘 카미노 별들의 들판까지 오늘도 걷는다-스페인 산티아고 가는 길(지성사)'를 펴냈으며 최근엔 방송작가가 쓴 '산티아고의 두 여자(김&정)'가 출간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실버 하우스' 11일 개원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이사장 현고스님)은 오는 11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 노인전문시설 및 노인복지관 '바라밀 실버 하우스'(관장 정미숙)를 개원한다.

'바라밀실버하우스'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에 따라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가 달라진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서비스, 노인성 질환과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재활 서비스, 여가 증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미숙 관장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 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노인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복지를 겸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바라밀 실버 하우스'는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62-953-4408.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설맞이 독거노인·장애인 합동세배

쌍촌종합사회복지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과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광주시쌍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금중)은 5일 오전 10시 복지관 2층 강당에서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300여 명을 초청, '무자년 설맞이 독거노인 합동 세배 드리기와 떡국 나누기 잔치'를 갖는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빛고을 문화 봉사단'의 공연과 함께 사랑의 선물나누기, 가전제품 무상수리 등으로 진행된다.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윤금중 관장은 "어르신들과 함께 점차 희미해져가는 명절의 참뜻을 되새기고, 덕담을 나누며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61-8949 핸 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토지매매
·나주시 안창동 관리지역 田총 15,525㎡ 진입로 있음 공장부지 등 적합 매매가 4억
·북구 삼각동 주거지역 면적843㎡ 매매가 평당 4억
·광산구 장록동 생산녹지 총 1,941㎡ 매매가 2억6,000만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산 83,558㎡ 국도변접 농림지역 매매가 1억5,000만원
·북구 각화동 3종 주거지역 면적 427㎡ 매매가 1억7,000만원
·담양군,읍,산만리 관리지역 임야 1,400㎡ 2차선접 전원주택지 최적 매매가 1억5,000만원
·담양군 남면 구산리 2차선 국도접 관리지역 6,869㎡ 매매가 1억 6,000만원
·광산구 옥동 평동소재지 2종주거지역 595㎡ 매매가 1억3,000만원
·서구 화정동 전답지 202㎡ 폭넓은 12세대 신축가능 매매가 1억4,000만원

건물매매
·북구 두암동 상권좋고 사거리코너 대지 1,023㎡ 건평 5,473㎡ 세보증금 20억에 월4,000만원 융자 18억 매매가 60억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건너편 대지 208㎡ 건평379㎡ 세보증금 6,000만원 월90만원 매매가 2억7,000만원
·전대 정문앞 대로변코너 대지176㎡ 건평 538.2㎡ 세보증금 8,700만원에 월180만원 매매가 4억
·북구 풍향동 교대앞 대로변 대지 195.4㎡ 건물 697.3㎡ 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250만원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5억
·북구 임곡동 상업지역 대지 378㎡ 건 1,550㎡ 지하1층 지상5층 세2억5,000 보증금에 월600만원 매매가 11억
·북구 운암동 대지 300㎡ 건평 998.6㎡ 지하1층 지상5층 세보증금 5억 3,000만원에 월440만원 매매가 14억
·북구 두암동 대로변 780㎡ 건평 4,468㎡ 세보증금 14억에 월3,000만원 매매가 56억
·서구 농성동 대로변코너 대 512㎡ 건평 1,139㎡ 지하1층 지상4층 세보증금 9,000만원에 월815만원 융자 5억포함 매매가 10억
·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앞 대로변 대지 145.3㎡ 2층 136.2㎡ 매매가 1억 4,000만원
·북구 용봉동 현대APT정문앞 대지 370㎡ 건평 약230평(단층 조립식) 세보증금 4800만원/월180만원 매매가 4억3,000만원
·북구 용봉동 우산주공 정문앞 식당건물(현재성업중) 대지 208㎡ 건평 132㎡ 최고요지 매매가 4억 3,000만원

급매 고시원매매
·북구 용봉동 상대뒷편 대지 332㎡ 건평 902㎡ 건물2동A.B동 실85실 월수입 약1600만원 융자 3억8,000만원 매매가 8억5,000만원

주유소및 부지매매
·북구 오치동 20m도로변 대지1,480㎡ 주유소 허가증 월매출 약3억 매매가 14억
※주유소, 충전소, 물건다량보유, 물건접수환영
※원룸, 고시원 물건다량보유 상담요

상무랜드공인중개사
☎(代)383-5221 핸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빌딩
• 대지500 건물1,300 한빛병원적합 치평동 매매가 75억
• 보증금 36억 월세3,100만원 (지역최고상권)·융자12억 매가80억 (토지와 교환가능)
• 보증금8억 월 1,700만원 (신축) 융자8억 매가 34억
• 보증금20억 월세4,000만원 융자18억 매가65억
• 보증금5억 월세2,000만원 융자7억 매가27억

◉땅
(상무지구)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 727㎡(220평) 3.3㎡당 1,200만원(유흥가)
• 450㎡(136평) 3.3㎡당 850만원(유흥가)
• 330㎡(100평) 3.3㎡당 800만원(시청역입구)
• 3,593㎡(1,087)3.3㎡당600만원
(기타지구)
• (쌍촌동)800세대아파트입구877㎡ (266평) 3.3㎡당 350만원(수파적합)
• (농장)그린벨트73,000㎡(2만2천평) 농장 3.3㎡당 11만원(동산동)
• (쌍촌동)대지512㎡(155평)20M 도로접 3.3㎡당 265만원
• (장동동) 3,760㎡(1,140평)평당40만원

◉병원·학원·수퍼·식당 기타
• 4,300㎡(1,300평)3.3㎡당 350만원 (동림동빛고을보일구)
• 근린시설(병원,학원,독서당 적합) 1,652㎡(500평)㎡ 당 700만원 (하남2지구)
• 1,200㎡(360평)3.3㎡ 당 350만원 (병원,학원,식당 적합)(금호지구)
• 대지528㎡(160평)3.3㎡ 당 470만원 (주공아파트정문 앞)(수완지구)

◉모텔·호텔매매·사우나
• 객실35개 융자20억 매가28억
• 객실33개 융자9억 매매가12억
• 대지500/건물1,900 사우나 매가39억

★24시간 전화 물건 접수합니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할
Tel:062)973-9174, 016-757-8800

수완택지지구 200평
첨단지구 500평 200평
건물 28억 (보4억 월2000만원)
골프 연습장 (광주)
주유소 부지
공장부지 (담양 2천~8천평)

분양 · 임대

첨단중앙메디칼센타
(2008년 2월 준공)
1층 53평 58평 40평 편의시설
2~6층 각 166평 병.의원
7층 70평 모든업종 가능

건물 28억

•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한일지도판매(주)
☎(예약)529-1409 상담 010-2466-1409 (전화)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지산동 373-8 법원정문앞)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① 광주 광역시 전지역 재정비·도시계획·용도지역·하남4공단 경계수록 최신 지적, 산규APT 수록
② 나주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록, 나주송월동 스포츠타운 수록, 송월택지개발지구 가지번수록 나주 촌곡리 남양유업수록, 혁신도시 최종안 수록, 혁신도시로 연결된 도시계획 수록
③ 화순 화순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수록 최신지적 수록
④ 장성 장성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개발예정인 장성남면에 그린벨트 1차,2차 해제수록 나노단지 지정, 배치도 수록
⑤ 담양 담양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수록, 최신지적 수록, 보촌지구 수록
⑥ 함평 함평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해제 수록, 최신지적 수록

최신 (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6개 시·군 1권에 수록) 1/7500
한일지도판매(주) 광주(062)529-1409 527-8310

정가:100만원→특별판매가:50만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성,담양,화순,나주책은 그린벨트 해제된 책은 없습니다.
이외 더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서면으로는 다 일일수가 없어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기시 한달동안 전화 예약하신분에 한하여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 50% 세일을 단행하였으니 좋은 기회를 이용하세요.
【영업사원 ○○명 모집】